

## 제 3 부

---

### 사진 - 이주자로서의 나의 일상

한국에서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은 이주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 달빛 속에서 내일을 꿈꾸고

장정

나는 학창시절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웠다. 조선족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개성 있는’ 소수 민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중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조선족이라고 말하면 모두 신기해했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지 물어봤다.

나의 부모님 세대에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일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같은 반 친구들의 부모님과 친척들도 언어적 소통이 자유로운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중국에서 장사를 하다가 한국으로 가서 일하셨다. 한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내가 유학을 오게 되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유학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항상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국제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영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다.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던 중 코로나 19가 터졌다. 코로나를 계기로 영국 대신 가깝고 부모님이 계신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 학번’으로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입학했을 때부터 1년 반 동안 대면 수업 없이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들었다. 외국으로 유학까지 왔는데 기대했던 대학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에 한동안 우울하고 심적으로 힘들었다. 내가 상상했던



유학은 아무도 나를 모르는 지역에서 혼자 독립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두 번이나 와본 적 있어 익숙했고 가족들도 있어서 지금도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

부모님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시려고 한다. 한국에 오래 살았고 모든 것이 편리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속 한편으로는 항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 나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중국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4년 정도 지나니 중국에 대한 향수가 생겼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는 것이 지닌 강한 힘이 있는 것 같다.

사진에 대한 관심은 친오빠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13살 차이가 나는 오빠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오빠가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로 혼자 장난을 치기도 하고 따라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카메라와 사진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오빠처럼 멋진 사진을 찍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지금까지 사진과 영상에 관한 관심이 이어졌다. 사진을 찍을 때는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과 분위기 전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인물 사진보다는 전체적인 사물과 풍경을 많이 찍는다.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분위기를 담아 내 감정이 잘 드러난다면 그것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응모한 사진들을 통해서도 이주민으로서 외국에 살면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늘과 내일을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오늘 상처를 받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하루이니 계속 살아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는 내일을 꿈꾸며 꾸준히 나아가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사실 나는 이주민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차별로 힘들었던 경험이 거의 없다. 무엇보다 한국어가 유창해서 그런지 한국인들이 나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저 중국 사람이에요’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 나를 한국인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다른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인과 소통이나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엄마가 한국에서 매일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타향살이의 피곤함과 고됨을 접하고 있다. 이런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두운 퇴근길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국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대외활동에 참여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공부만 하면서 너무 재미없게 살았다면, 한국에서는 대학을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삶의 형태를 받아들이고 꼭 답을 하나로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개개인의 독특함과 특별함을 표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달빛 속에서 내일을 꿈꾸고

어느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촬영했다. 밝고 둥근 달도 눈에 띄지만, 유난히 눈이 더 많이 가는 것은 트럭 윗부분의 스크래치였다. 이 스크래치가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내면과 닮아있다고 느꼈다. 고향이 아닌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속 누구나 꺼내기 어려운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이주민들은 그 상처를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에 혼자서 달래며 또 하루를 버텨간다. 이주민의 깊은 외로움, 쓸쓸함을 표현하고 싶어 어둡한 골목길을 택했다. 골목길에 작고 밝은 가로등 빛으로 외로움 속에서도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쓸쓸하지만 따뜻한 사진을 표현하고자 했다.



골목



고향의 맛 1



고향의 맛 2

이 사진들은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서 촬영한 것이다. 이주민들이 타지에서 오래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중국 사탕을 촬영했다. 실제로 어머니와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도 쉬는 시간에 중국 간식을 자주 드신다.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은 어딘가 분주하고 피곤해 보인다. 식당 일은 힘들고 고되다.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힘이 많이 들고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짊어진 책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삶의 단편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인과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고향의 맛 3